

작품 내용

제 목	받아 적는
내 용	빌린 숨으로 여는 입 진 꽃 한 줌, 더운 김 한 술, 늦은 버스 한 칸 누구의 부엌이었는지 이제는 흐릿하다 받아 적을수록 손은 닳고 닳을수록 그릇은 가벼워져 빈 그릇을 빈 채 돌려보내지 못해 나는 내 숨 한 줌 거기 마저 얹는다 갇히려 손을 펴 보면 그 손도 빌린 것 임자를 찾다 찾다 끝내 비워 둔 괄호 () 그 빈자리 지금 이 줄을 읽는 네 얼굴이 고일까